성공 육계사업의 키워드, (주)계흥

농가와 계열업체간 가교역할 톡톡히…
정보 제공을 통한 업계 발전에도 앞장서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

"계흥과 함께 하면 양계산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종계 · 부화, 육계 사양관리, 도계, 유통 등 육계산업 전 방위에 걸쳐 일해 왔던 전문가 4명이 뭉쳐 국내 육계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주)계흥(대표이사 유재석)을 창립, 지난 1월 15일 육계농가 및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식을 갖고 힘찬 첫 발을 내딛었다.

계열주체와 농가간의 가교역할 최우선

1980년대 후반 육계 계열화 사업이 정착된 후 국내 육계산업은 전업화, 규모화, 현대화를 이루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난 20여 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적인 팽창과 일부 계열주체와 농가간의 불협화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계열주체와 농장간의 상호 입장을 대변하여 함께 성공사업으로 갈 수 있는 가교적인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부응해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주)계흥이다.

"육계산업은 원종계, 종계 · 부화, 병아리, 사육, 도계, 유통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그 중에서도 산업발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농장과 계열주체 간 협력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농장과 계열주체 간 불신의 골을 해결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나아가 모든 관련 산업에 연관된 업체들의 특별한 경험들을 잘 조합하여 육계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미력하나마 힘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계흥을 창업하게 되었다"는 게 유재석 대표이사의 말이다.

실제로 (주)계흥은 직원 3명의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종계 · 부화,

(주)계흥 유재석 대표이사

종계 · 육계 사양관리, 도계, 유통 등 육계산업의 분야별 전문가 임원 4명의 경력을 합칠 경우 100년이 될 정도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전문성을 토대로 (주)계흥은 육계산업 곳곳에 숨겨진 문제점을 발굴해 해결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또 (주)계흥은 앞으로 종계장, 부화장, 사육농장, 도계장, 체인점 등에서 얻은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많은 시험을 통해 획득한 기술력을 업계와 함께 공유할 것이며, 경제적인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고 업계의 발전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내 육계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동종회사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현장의 노하우와 정보 공유로 육계산업 발전에 기여

(주)계흥은 육계농가의 사양관리 지도를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많은 노하우와 다양한 사양관리 기술 방법 등을 농가와 공유, 사육과정에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앞으로는 자체농장을 운영, 각종 시험사육을 통해 얻은 현장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업계와 함께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유재석 대표이사는 "오래 전부터 느꼈던 점이지만 양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개개인의 경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타 축종에 비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 실패를 반복하고 경제적 손실은 물론 명예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계흥은 각종 시험사육과 현장 경험에서 획득한 소중한 자료를 업계와 함께 공유, 마음의 벽을 허물어 육계인 모두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계열업체와의 지속적인 업무 제휴를 통해 기술력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주)계흥의 모든 임직원들과 동종업계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 수의사를 통한 수의 서비스를 필요한 곳에 제공할 것이며, 전문가와 연결하여 계사신축, 증축, 단열 등에 대한 업무와 계사 내부시설에 필요한 급이 · 급수, 휀, 안개분무, 열풍기 등 사육에 필요한 모든 시설의 기술력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계흥은 육계사육, 종계 · 부화 부분은 협력업체로서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계와 체인점 사업은 다양하게 구상 중이다.

(주)계흥을 통해 육계인 모두가 희망을 갖고, 육계업을 선택한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기 위해 계흥의 임직원들은 오늘도 전국 방방곳곳을 찾아다니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계흥과 함께 하면 양계산업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주)계흥의 굳은 의지와 믿음이 곧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